

새로운 方向 모색하는 싱가포르精油業界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中東과 印尼의 도전

싱가포르精油業界는 전통적인 고객상실과 점증하는 中東의 도전에 의한 위협을 받게 됨으로써 世界 3大정유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제때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유산업은 싱가포르製造業 총매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경제부문이 되고 있다. 최근의 에너지 정세의 변화속에서 싱가포르 정유산업은 그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을 다시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석유회사 경영진들의 한 조사보고서는, 싱가포르정유업체가 우려는 되고 있지만 정제·판매상의 새로운 시장여건이라는 도전에 자신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싱가포르는 의심할 여지없이 極東의 정유중심지였다. 日本이 대규모 정유산업을 가졌지만, 싱가포르는 국제석유루트의 길목에 있는 전략적 위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정유시설 및 석유제품거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 등의 이유 때문에 석유산업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먹구름이 일기 시작하였다. 금년초에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에서 위탁정제계약의 마지막 分의 정제를 끝냄으로써 위탁정제고객으로의 역할을 마쳐게 되었다. 同업체는 또한 880,000b/d의 정유능력을 1988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는 페르사

灣으로부터 앞으로 東으로 흘러올 석유제품의 범람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수출을 목표로 한 사우디의 안부 정유공장 중 첫번째가 금년 8월초 가동에 들어갔다.

4 가지 戰略

싱가포르精油業者들은 4 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 정유업체는 스스로 필요를 느끼는 새로운 설비에 자본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2차정제설비 능력에서 그들은 말레이시아와 같은 옛 고객과 위탁정제 계약을 확대코자 하고 있으며, 中共과 같은 새로운 고객을 물색하고 있다. 그들은 싱가포르 정유업체가 東南아시아는 물론 濠洲, 日本, 印度大陸국가들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前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半카고와 같은 적은 양의 석유를 정제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스팟트精製 (spot processing)」를 새로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中東과 인도네시아 양쪽에서 앞으로 세우게 될 새로운 最良의 정유설비와 경쟁할만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하이드로크랙킹施設 사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쟁할 능력이 있고, 또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고 BP 회장인 K. R. Seal氏는 말하고 있다.

BP는 금년 2월에, 싱가포르石油會社(SPC) 및 Caltex(Asia)와 함께 그들 共同의 합작회사인 싱

가포르精油會社(SRC) 內에 美貨 8,650만달러 상당의 2차정유설비 고도화를 이룰 하이드로크래킹施設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업계관측통들은 이러한 자본투자를 세계수준급의 정유중심지로서 선두역할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싱가포르가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印尼의 喪失

同정유업계는 그들의 최대위탁정제고객인 인도네시아를 상실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전통적으로 정유부문이 취약했던 인도네시아는 설계기준 총 518,000b/d의 정유능력을 높여 총계 760,000b/d까지 늘리는 정유시설확장계획을 최근 끝냈다.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신의 석유를 정제하고 그 제품의 판매대금 결제장소로서 싱가포르에 의존하여 왔으나, 새로운 정유시설로 인도네시아는 마침내 석유제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관측통은 印尼정유부문 상실은 同업계에 파멸의 징조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유회사 경영자들은 그러한 사태를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절망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한 회사 추산에 따르면, 1981-82년에 인도네시아의 原油가 싱가포르에서 정제된 전체석유의 총이상을 차지했다고 한다. 1984년 1/4분기엔 인도네시아 원유를 겨우 60,000b/d를 정제했을 뿐이었고, 정제위탁계약 기한만료시일인 지난 4월 1일 이후엔 최소량을 정제하였다.

印尼는 원유처리고객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부 석유제품의 중요한 시장이었다. 1년간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는 가장 최근인 1982년도에 맺어진 반대무역협정(counter-trade arrangements) 하에서, 인도네시아는 거의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육상용 및 선박용 경유 같은 중간유분 1,920만 배럴 뿐만 아니라 1,640만배럴의 제트油, 등유 및 항공연료유도 수입하였다.

『인도네시아를 잃은 것은 말할 나위없이 장래가 밝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자기네 공장을 적절히 가동해야만 하므로 계속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理由때문에 共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곳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그들의 정유계획상 不足分을 보충하는데 싱가포르

도움없이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심의를 품고 있다.』

싱가포르 정유공장들은 그 설계가 페르샤灣원유에 맞게 되어 있으므로 현지원유나 페르샤灣 원유를 혼합사용할 때 실제최대가동능력은 좀처럼 설계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설계능력 1,088,000b/d에 900,000b/d 이상을 가동하는 일은 드물다. 싱가포르 정유업에 직접 관련된 기업은 6개회사이다. 앞서 말한 BP, SPEC 및 칼텍스 이외에 셸 이스턴 피트롤리엄, 옛소 싱가포르 및 모빌 오일 싱가포르가 또한 정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業界의 先頭走者

기본능력이 최대이며 최신기술을 가진 공장의 운영자로서의 셸은 同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뛰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同社는 기본정유능력 460,000b/d의 감축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60,000b/d나 혹은 110,000b/d의 두 가지 중 하나를 감축해야 하지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위탁정제계약을 포함한 반대무역은 거의 그들 정제량의 40%에 달한다. 1983년 평균 가동수준은 거의 실제능력수준에 달하는 400,000b/d이었다.

『결프와 인도네시아의 정유공장확장 때문에 생긴 새로운 석유제품과 같은 일부 외부적 요인은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금년말 이전에 단결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만 돌아올 뿐이다.』고 셸의 공급·판매 담당이사인 Evert Henkes氏는 말한다.

싱가포르의 두번째 회사인 옛소로서는 기본정제능력을 감축해야 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하류부문시설을 더 늘려야만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라고 싱가포르 무역업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때는 옛소가 그의 정제시에 현지 아시아產 원유를 평균 50% 이상 사용하였으며, 지난 해 정제의 卅이 중간유분 생산으로 들어갔다.

同社는 160-170,000b/d로 정제해 왔으며, 셸처럼 적극적으로, 잃은 인도네시아 대신 새로운 고객을 찾고 있다.

셸과 싱가포르 세번째 회사인 모빌은 모두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출용정유공장과 합작사업을 벌이

고 있다. 홍해의 안부공장에 50%의 투자를 하고 있는 모빌은 대부분의 생산물을 西쪽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페르샤灣의 쥬베일정유공장에 50%의 투자를 하고 있는 셸은 제품을 東으로 운송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우디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민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석유제품 판매계획은 아직 미지수이다. 모든 싱가포르 정유회사는 中東의 새 정유공장의 제품수입을 막아냄으로써 자신들의 시설가동률을 가능한 한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工程上的 彈力性 改善

모빌은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자본투자를 하지 않지만, 그 대신 공정의 탄력성개선과 주요에너지 절약사업에 관심을 쏟아 왔다. 모빌의 정유공장이 최신의 2차정제설비를 갖고 있지만 비스브레이커의 규모엔 몇가지 문제가 있다.

『모빌이 전력을 다 할때는 50,000b/d의 비스브레이커로서 훌륭히 해 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불안정한 여건이 항상 그러한 것을 허용치 않는다』고 공장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持分 耑로 함께 일하는 세 정유회사 중 SRC, 칼텍스는 적어도 현재로 봐서는 가장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칼텍스의 상무이사인 Leonard S. Platt氏는 『우리는 조직전반에 걸친 관점에서 보고 있다. 우리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설로서 상당한 경제상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형편이 좋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SRC정유공장가동에 추가로 더 25,000b/d를 가동하고 있는 BP로서는, 비록 BP 고위층이 좀더 나은 원유하역시설과 석유저장탱커의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하이드로크래커의 건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1983년에 BP는 아시아產 원유를 평균 30-35%, 페르샤灣원유를 65-70%로 가동하였다. 변화하는 정유업계의 상황에 대해 우려가 되는 가운데서도 BP는 경쟁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는 페르샤灣에 대해 계속 주시해야 한다. 우리의 조직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페르샤灣과 인도네시아 양쪽의

새 정유공장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分別力을 갖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國內市場 제품공급

정유회사 중, 국내업체가 다수지분소유로서 유일한 회사인 SPC는 비록 관심의 초점이 단순히 국내시장공급에 있다고 하지만, BP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SPC는 정유가동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

6개 정유회사 모두가, 크게 다른 아시아에너지 환경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성과 능력이 각기 조금씩 다르다. 모두가 정유사업을 모색해 오고 있지만 어느 회사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새로운 고객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리라곤 기대하지 않는다.

셸의 대책은 인도네시아의 상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무역과 스파트정제를 찾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금년초 셸은 中共和 첫번째로 1년간 20,000b/d의 정제계약을 체결하는 큰 수확을 올렸다. 셸은 오만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계약상담을 벌여 왔다.

다른 정유회사들은 말레이시아가 다른 대규모 정유공장 건설계획을 완전히 뒤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의 말레이시아精製에 걸었다. 지난달 모빌, 엑스, BP 및 SPC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와 3년간 70,000b/d의 정제계약과 그 외에 3/4분기에 15,000b/d의 정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물량은 당초 희망했던 것보다는 적지만 전번 계약때 보다 많은 양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많은 싱가포르 정유회사들은 아시아에너지시장에서 그들 자신의 장래 역할에 관해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타이티섬의 牧歌的인 시대는 지나갔지만, 경쟁의 결여가 업계에 이롭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하고 싱가포르의 한 석유전문가는 말했다.

싱가포르 정유회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만 할테지만 그들은 몇가지 커다란 경쟁적 優位, 예컨대 최신기술의 정유시설, 훈련된 人力, 탄력적인 가동 및 世界大港口라는 點 등을 여전히 지니고 있고 단순히 위치상으로 보아 계속 정유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감축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 정유회사들이 바로 얼마나 많이 싸우고자 하는 것은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에서 보여지고 있다. 정제수수료가 배럴당 20센트 깎여서 70센트로 떨어졌다. 몇년전 배럴당 1.25달러까지 갔던 상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希望的인 징조들

다른 희망적 징조가 몇가지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몇몇 정유공장 확장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싱가포르 석유제품에 대한 제1의 고객이다. 인도네시아의 싱가포르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은 실제로 1983년도에 39% 증가를 기록했고, 싱가포르精油會社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가 싱가포르에서 석유를 전보다 더 적게 정제하면 서도 아직까지 석유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싱가포르貿易業者들은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 석유제품의 상당한 물량을 계속 사들 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었고, 많은 정유회사들도 인도네시아가 상당기간 동안 석유제품의 순수입업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히 오랫동안 누려왔던 손쉬운 이익 같은 것은 이젠 사라졌다고 어느 日本석유무역업자가 말했다. 그러나 여기 현지정유회사들은 만일 손을 빨리 쓴다면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6개 회사가 정하는 가격이 모인 시장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더욱 경쟁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 石油市場動向 □

4/4분기 석유현물시장 약세지속

사우디 아라비아의 유종별 원유공급비율 조정의 여파로서 나타난 페르시아만 원유의 가격하락에 뒤 이어 그동안 강보합세를 보여온 북해산 Brent 및 미국 WTI 등 여타 주요 유종의 현물가격도 내리기 시작함으로써 10월의 원유현물시장은 전반적인 약세에 빠져들었다. 단지 가스 오일의 정제량이 풍부한 나이지리아산 원유만이 매수우세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금번 사우디 아라비아의 유종별 비율조정은 결과적으로 사우디 원유의 평균 공식가격을 배럴당 50센트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서, 이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유수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Aramco 파트너들이 최근 90만 b/d 이하로까지 줄었던 인수물량을 서둘러 상향조정하면서 현물원유구매를 감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Arab Heavy의 증산을 통해 원유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우디의 결정은 Swing Producer로서의 사우디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앞으로의 OPEC 회원국간의 계속과 비OPEC 회원국의 OPEC에 대한 협조자세에 다소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증직한 OPEC 회원국이었던 아부다비는 독자적으로 자국산 경질유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OPEC산유국간의 가격인하전쟁의 시발로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12월 총회에서의 쿼터량 증가를 위한 슬쩍 내지는 여타 OPEC 산유국들이 자행하고 있는 여러 가격할인 형태에 대한 경고 정도로 다소 감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아부다비가 공식가격인하와 같이 현 OPEC 규정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중질원유는 없이 오로지 경질원유만을 생산하면서 현저히 줄어든 원유판매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 지분생산자에 대한 이윤폭 확대나 혹은 원유대금의 외상기간 연장과 같은 위장된 가격할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프랑스 Mirage 전투기와 UAE 원유의 바터거래계약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이미 18대의 전투기가 제작완료되어 인도 대기상태에 있다는 추측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만간에 15백만배럴의 원유가 약세의 석유시장에 또 다른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